

올바른 112 신고 공모전

윤 현 지

<올바른 112 신고 공모전>

- 올바른 신고 방법 안내

- >정확한 위치 알려주기

- >현재 상황 알려주기

'신고했는데' 범행 장소 찾느라 헤맨 경찰... 신고자는 사망

중앙일보 | 입력 2021.02.24 15:26

최모란 기자



중앙일보

"흥기로 위협을 받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헤매다 신고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신고한 뒤 50분 뒤 도착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여성은 흥기에 찢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신고 접수와 초동 대응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코드 0' 발령하고도 현장에 50분 뒤 도착한 경찰

24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0시 49분 112신고센터로 "(상대방이) 흥기를 들고 나를 찢으려 한다"고 신고했다. 접수 요원이 신고자의 위치를 묻자 있는 B씨(53) 집"이라고 말했다. 접수 요원은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 '코드 0'를 발령했다. 하지만 신고자는 감금·살인·강도 등 강력범죄가 의심될 경우 발령되는 최고 단계다.

경찰이 위치 파악 못해 허둥댄 살해됐다

권상은 기자

입력 2021.02.24 15:17



/조선DB

심야에 40대 여성이 살고 지내던 50대 남성의 집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여성은 112신고를 했으나, 휴대폰 위치 추적에 실패해 경찰이 주소를 파악할 수 없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여성은 흥기에 찢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신고 접수와 초동 대응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새벽 0시49분쯤 경기 여성 A(49)씨가 112 신고를 했다. 약 42초간 이루어진 통화에서 A씨가 "남자가 흥기를 들고 찢으려 한다"고 신고했다. 112 상황실 접수요원은 "모르겠다"고 했다.

"살려주세요" 신고 뒤 끊긴 전화...위치 추적 1/3만 성공

입력 2021-10-04 20:19 | 수정 2021-10-04 20:24

6 가 8 < > >



< "오랜만입니다"..남북 통신 연락선 55일 만에 복원 > 토니 블레어·요르단 국왕..조 세 피난처에 재산은닉? >

> 연속재생

앵커

112나 119에 주소를 알 수 없는 다급한 전화를 올 때 경찰이나 소방은 통신사한테서 정보를 받아 위치를 추적합니다.

그런데 그 정보로 위치가 확인되는 경우가 열 건 중 3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와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영상 목적 ”

112에 신고시 주소를 모를 경우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과 경찰의 상황 파악을 위해 상황을 정확히 알리는 방법을 담은 영상 제작.

“ 선정과정 ”

112초라는 시간 내에
모든 장소를 담기는 어렵다고 판단

- > 그 중 대표적인 것 하나의 장소와 상황을 가정.
- > 그 외 장소 정보는 영상 마무리에 나레이션과 자막으로 설명

“ 상황 및 장소 ”

상황

경찰청에서 알린 코드 2 혹은 코드 1에 해당하는
범죄 상황 가정

장소

일상적인 장소인 동시에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노상'을 범죄 상황 발생 장소로 선정.
>범죄 전체 뿐 아니라 강력, 절도, 폭력 범죄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

“

전달내용

”

노상에서 장소 확인 방법

- > 건물 내 우편을 통한 주소 확인
- > 도로명 건물번호
- > 전봇대 고유번호.

이 중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전봇대 고유번호**

“

시놉시스

”

- >시뮬레이션 게임 속 세계.
- >게임 속에서 괴han에게 쫓기는 게임 속 주인공 윤진
- >경찰에 신고
- >장소 전달 선택창
- >잘못된 선택으로 실패(잘못된 예시 전달)
- >다시 시도
- >장소 선택창 정답 선택 후 산황 설명 선택창도 정답
- >꿈에서 깨는 윤진
- >실제 현실에서 같은 상황 반복
- >게임과 같이 경찰에 신고

감사합니다.

